

책 임 자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김 기 한(02-2100-2990)	담 당 자	최 치 연 서기관 (02-2100-2991) 양 재 훈 사무관 (02-2100-2993)
	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김 태 경(02-3145-6770)		이 희 준 부국장 (02-3145-6772)
	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김 동 궁(02-3145-7550)		정 용 결 팀장 (02-3145-7447)
	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 양 진 호(02-3145-8070)		이 길 성 팀장 (02-3145-8072)
	서울보증보험 개인고객부장 조 성 용(02-3671-7791)		박 진 용 팀장 (02-3671-7788)

## 제 목 : '17년 중금리대출 실적 및 제도 개선방향

- '17년중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3조 7,380원(당초 예상목표 3.5조원)
  -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2조 7,812억원으로 '16년 대비 2.9배
  - 사잇돌대출 취급액은 9,568억원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중
- 최고금리 인하 등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 재정비 등을 추진
  - 가중평균금리를 18%→16.5%로 인하, 최고금리를 20% 미만으로 제한

## 1 개요

□ '17년중 전체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3조 7,380억원으로, 당초 예상 목표(3.5조원)을 초과

○ 민간 중금리대출 2조 7,812억원, 사잇돌대출 9,568억원 공급

※ 민간 중금리대출은 신용등급 4~10등급 차주에 70% 이상 공급되고 가중평균금리가 18% 이하인 가계신용대출 상품이며, 각 금융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산정(사잇돌·P2P 제외)

☞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 기준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관리하는 상품이 자동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으며, 금리 및 중·저신용자 취급비중 등을 감안하여 감독목적상 별도로 산정한 규모

## 2 민간 중금리대출 현황

□ (취급액) 그간 정책적 노력\* 등에 힘입어 '17년중 취급액이 2조 7,81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, '16년(9,481억원) 대비 2.9배 수준

\* 중금리대출 취급시 인센티브 부여(저축은행·은행), 중금리대출 공시 강화·저축은행 대출시 신용등급 하락 완화 등 소비자 편의 제고

○ 여전사 1조 3,330억원('16년 대비 3.5배), 저축은행 8,906억원('16년 대비 1.8배), 은행 3,969억원('16년 대비 4.6배), 상호금융 1,608억원 順

\* 건당 평균(만원) : (은행) 525 (상호금융) 1,346 (저축은행) 1,391 (여전사) 618

<금융권별 중금리대출 취급액 (단위:억원)>

	'16년	'17년
은행	866	3,969
상호금융	-	1,608
저축은행	4,816	8,906
여전사	3,799	13,330
계	9,481	27,812

□ (잔액)\* '16년말 9,809억원 → '17.6월 말 1조 7,917억원 → '17년 말 2조 3,683억원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

\* (은행) 3,355억원 (상호금융) 1,331억원 (저축은행) 8,847억원 (여전사) 10,150억원

□ (평균 대출금리) 은행 7.65%, 상호금융 7.30%, 저축은행 15.00%, 여전사 16.15%

\* 대출액 기준 가중평균금리

□ (신용등급) 4~7등급의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중·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 공급 확대라는 정책목적에 부합

- 권역별 4~7등급 차주의 대출액 비중은 상호금융 80.6%, 여전사 79.4%, 저축은행 78.4%, 은행 68.9% 順

<신용등급별 대출액 비중(단위 : %)>

신용등급	1	2	3	4	5	6	7	8	9 이하	4~7 계
은행	3.0	9.1	14.6	18.0	21.3	16.4	13.2	2.9	1.5	68.9
상호금융	2.4	7.3	7.1	19.9	25.6	25.1	10.0	2.3	0.3	80.6
저축은행	5.9	7.0	8.2	18.1	27.3	21.7	11.3	0.5	-	78.4
여전사	4.0	7.1	9.1	17.0	24.7	25.4	12.3	0.4	-	79.4

\* KCB 신용등급 우선 적용, KCB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NICE 신용등급 적용

□ (평균 대출금리) 은행 7.12%, 상호금융 8.27%, 저축은행 16.83%

\* 대출액 기준 가중평균금리, 출시 이후 공급분 기준

□ (신용등급) 은행은 2~6등급(89.1%), 상호금융은 3~7등급(85.5%), 저축은행은 5~7등급(85.7%) 중심으로 대출 실행

<신용등급별 대출액 비중(단위 : %)>

신용등급	1	2	3	4	5	6	7	8	9 이하	4~7 계
은행	4.9	11.7	18.6	23.2	22.8	12.8	5.9	0.1	-	64.8
상호금융	5.6	8.7	14.4	19.9	23.9	17.1	10.1	0.2	-	71.1
저축은행	0.2	0.7	2.2	5.0	12.5	24.2	49.0	6.1	0.1	90.7

\* 출시 이후 공급분 기준, KCB 신용등급 적용

### 3 사잇돌대출 현황

□ (취급액) '17년중 9,568억원(9.1만건)이 공급되었으며 중금리대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

- 저축은행 4,697억원, 은행 3,974억원, 상호금융 897억원 順

\* 건당 평균(만원) : (은행) 1,114 (상호금융) 1,144 (저축은행) 944

<금융권별 사잇돌대출 취급액 (단위:억원)>

	'16년	'17년
은행*	2,504	3,974
상호금융*	-	897
저축은행*	1,225	4,697
계	3,729	9,568

\* 은행 '16.7월, 저축은행 '16.9월, 상호금융 '17.6월 출시

- '16.7월 출시 이후 '17년말까지 1조 3,297억원을 공급하였으며 안정적인 공급 유지

### 4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향

① 「중금리대출 활성화 추진계획('18.1.25일)」을 차질없이 추진

① 중금리대출 취급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 추진

- (여전사) 대출자산 비중(전체자산의 30% 이하) 계산시 중금리대출은 일반대출의 80%로 축소 반영(시행령·감독규정 입법예고중)

- (신협) 조합원 신규대출액(비조합원 신규대출액의 2배 이상) 계산시 중금리대출은 일반대출의 150%로 반영(시행령·감독규정 입법예고 예정)

② 주요 금융그룹,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선도적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토록 적극 장려('17년 연 3.5조원→'22년 연 7조원 공급)

- 공급확대를 위해 5대 금융그룹 등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용평가 고도화, 고객 편의제고 등을 추진 예정

② 최고금리 인하 등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\* 재정비 등을 추진

\* 신용등급 4~10등급 차주에 70% 이상 공급되고 가중평균금리가 18% 이하인 가계신용대출 상품

- ① 민간 중금리대출 중·저신용자 비중은 지속 유지
- ② 민간 중금리대출 가중평균금리를 18%(‘17년)→16.5%(‘18년)로 인하 적용
- ③ 민간 중금리대출로 취급할 수 있는 최고금리를 20% 미만으로 제한
- ④ 금융회사가 민간 중금리대출로 사전 공시한 상품만 중금리 대출에 포함
- ⑤ 前 분기에 중금리대출 요건(①~④)을 충족한 상품을 중금리 대출로 광고하는 것을 허용

➡ '18년 상반기 중 관련 시행령·규정(저축은행·여전·신탁) 개정 등을 통해 '18년 하반기부터 적용하도록 추진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prfsc@korea.kr

